

여수세계박람회

초대형 음악공연 '오션블라스트피버' 4~13일 해상무대에

초여름 여수 밤바다가 뜨겁다

오션오페라·DJ댄스쇼·비트 수상공연도

초여름 여수 밤바다를 관악기와 타악기의 신나는 연주로 물들인다. 브로드웨이 극찬한 엔터테인먼트 오션블라스트피버(Ocean Blast Fever)가 4~13일 국내 처음으로 여수세계박람회 해상무대에 오른다.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음악 공연이다. 오션블라스트피버는 클래식, 재즈, 팝, 록, 테크노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300종 이상의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한다.

34명의 연주자가 펼쳐보이는 화려한 안무는 단순히 듣는 음악에서 시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음악과 다양한 색채의 무대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오션블라스트피버'는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또 공연 연출진은 박람회장 해상 무대에 맞게 기존 작품을 재구성해, 다양하게 교감하는 무대 확장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다의 소녀' '오션오페라' 'DJ댄스쇼' '비트' 등으로 이어지는 여수세계박람회 수상공연들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볼 수 있다. 6월 중순부터는 박람회장에 가요계 별들이 총출동해 팝의 향연을 벌인다. 슈퍼주니어, 씨엔블루 등 세계를 뒤흔든 K-POP 가수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요 페스티벌인 엑스포 팝

페스티벌은 6월 중순부터 8월 12일 페막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또 박람회의 최대 히트 상품인 빅오쇼가 매일 밤 펼쳐진다. 빅오쇼는 레이저, 화염, 안개 등 각종 연출효과를 내는 멀티위터스크린 디오(The-O)와 초대형 해상분수가 연출하는 광경이 장관을 이룬다. 빅오쇼는 해상무대뿐 아니라 바다 건너편인 주제관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근에 음향 시설 등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이 분비는 해상무대에 비해, 느긋하게 빅오쇼를 볼 수 있다.

엑스포팝 페스티벌은 6월 중순부터 8월 12일 페막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또 박람회의 최대 히트 상품인 빅오쇼가 매일 밤 펼쳐진다. 빅오쇼는 레이저, 화염, 안개 등 각종 연출효과를 내는 멀티위터스크린 디오(The-O)와 초대형 해상분수가 연출하는 광경이 장관을 이룬다. 빅오쇼는 해상무대뿐 아니라 바다 건너편인 주제관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근에 음향 시설 등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이 분비는 해상무대에 비해, 느긋하게 빅오쇼를 볼 수 있다.

엑스포팝 페스티벌은 6월 중순부터 8월 12일 페막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3일 여수세계박람회 모나코 국가의 날을 맞아 알베르 2세 국왕(왼쪽)이 강동석 조직위원장의 안내로 행사장인 엑스포홀로 향하고 있다.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 엑스포장 찾아

여수세계박람회 '모나코 국가의 날'을 맞아 3일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이 여수엑스포장을 찾았다.

모나코 국가의 날 행사는 해양 보호를 위한 사회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알베르 2세 국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국가의 날 의식행사 참가에 이어 모나코 전시관을 둘러봤다.

동행이 예정됐던 샤를렌 위트스톡 왕비는 일정상 참가하지 못했다.

알베르 2세는 이 자리에서 수세기에 걸쳐 해양보호에 앞장서 온 모나코 공국의 다양한 활동 및 노력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후에 열린 문화공연에서는 해양 다류멘터리 '오션스'를 상영해 주말을 맞아 박람회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상영회에는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오션스'를 연출한 프랑스 영화 감독 자크 페랑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모나코 국가의 날 문화공연 및 리셉션에 참석한 알베르 2세는 다음 날인 4일, 총 20개국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정, 재계 및 학계,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3차 모나코 블루 이니셔티브(Monaco Blue Initiative)를 주관한다.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및 삼성과의 비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모나코 정부=임문택기자 mtlim@

쇄빙선 아라온호 선상체험 하세요

6~7일 크루즈부두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6일부터 이틀간 박람회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선상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선상 체험행사는 6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크루즈부두에 정박해 있는 아라온호에서 진행된다.



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아라온호는 북극과 남극에서도 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시속 3노트(5.6Km)로 나아갈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세계 불교인 여수 모인다

11~16일 불교도대회 40개국 10만명 참여

전 세계 불교인의 만남인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WFB) 한국대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여수에서 오는 11~16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21세기의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 1000여 명의 불교지도자와 10만여 명의 불자들이 한데 모여 세계불교도의 화합·일치·우의를 다지게 된다.

이번 세계불교도대회는 다채로운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또 12일 오후 4시30분 흥국체육관에서 40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린다. 이어 13일 오후 7시 디오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불교전통문화의 하이라인 '범패'를 중심으로 찬불가를 전통악기와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풀어내는 '소리수행 범패 콘서트'가 공연된다.

이 밖에도 세계불교도대회를 기념해 제작한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는 14일 오후 7시 흥국체육관에서 초연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몽니부린 일본

'해양베스트관' 독도 전시물·동해 표기 문제 여수박람회 '일본의 날' 고위관료 파견 안해

일본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입장과 맞지 않는 전시물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보내지 않아 '일본 국가의 날'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졌다.

3일 조직위는 "지난 2일 열린 일본 국가의 날 행사에 계획과는 달리 일본 고위 관료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

고, 경제산업성 과장급 공무원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일 열리는 여수박람회 일본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관료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여수박람회 전시물 일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일본해(동해) 호칭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또 "이런 전시물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는데도 이런 항의와 철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박람회장 '해양베스트관'에 전시된 독도 부근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모형과 슬라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가 몰디브다. 몰디브는 1192개의 섬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바다에 잠기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몰디브의 평균 해발고도는 0.8~1m. 육지의 80%는 1m 이하로, 가장 높은 곳도 3m를 넘지 않는다. 전망대로라면 몰디브는 섬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국가의 날에는 인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몰디브가 초대됐다.

- △국가의 날-몰디브(엑스포홀·오전 10시)
△특별기획공연 '비틀개비'(천막극장·오전 10시 20분)
△특별기획공연 '전통혼례 재현'(전통마당·오전 11시 30분)
△수상공연페스티벌 '비트'(해상무대·오전 11시)
△해상쇼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해양문화체험 '해피아' '바다는 보물창고'(컨퍼런스홀·오후 2시)
△참가국 문화공연 '케냐'(해양광장·오후 6시)
△수상공연페스티벌 '오션블라스트피버'(해상무대·오후 7시 30분)
△특별기획공연 '점프'(천막극장·밤 8시)
△참가국 문화공연 '파라과이 디제이 팩'(해상무대·밤 10시)

△어제의 관람객 수=4만8462명(이하 3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108만4241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세대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도로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6개 대출 4억2천 대매가 8억9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구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안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최고도로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액 600평(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 1,500만원 토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용가능, 식당영업중) ■ 상무지구 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사가리코너) ■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용가능) ■ 상무지구 3,400㎡(약 1,000평) 평당 750만원(시상용) (회사사무, 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 중주가지, 운암-하남 간대로변 4,470㎡(약 1,352평) - 평당 330만 (예식장 적함) 맞춤주유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이유포매 전하 주실 ★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지하1층)